

| 노사정대표자회의_ 4개 의제별위원회 |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8월까지 'ILO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 마무리

김미영 전문위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2018년 7월 20일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4.23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몇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와 준비회의를 거쳐서 추진되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위원 각 2인, 정부 대표 위원 1인 그리고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했다.





발족회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박태주 상임위원, 박명준 수석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박수근 위원장은 “국제교역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뿐 아니라, 한국이 이미 ILO현장을 비준한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998년 ILO기본협약의 비준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은 단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역을 배제할 수 없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의 경제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노사정은 경제 공동체의 관점에서 적정한 합의 이르겠다는 의지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발족회의이자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방식, 의제 선정기준과 단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7월과 8월 동안에는 매주 1회 그리고 9월부터는 2주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6회 내지 7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으로 떠오른 ILO기본협약 비준 관련 국내법 쟁점의 범위, 선정기준 및 관련 법률 등의 점검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9월 중후반 이후 위원회 회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노동기본권 관련 쟁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 및 관행 등에서 의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인원	위원
위원장		1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노동계	2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경영계	2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정부	1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행안부, 법무부 등에서 사안별 결합
	공익	2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2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사	1	김미영 전문위원